

“학생부에 학폭 기재”... 광주 국공립 교장단, 교육감에 반기

교장들 ‘보류 지시’ 정면 반발... 시교육청 향후 조치 주목

광주지역 국·공립 중·고교 교장들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반기를 들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 기재 보류’ 지시에 정면 반발, 학교장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한 일선 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지역 국·공립 교장들에

따르면 최근 국·공립 중등 교장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법규대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기재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교육부 지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광주지역 고교 교장들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시 전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입 혼선과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엔 고교에 이어 중학교 교장들이 ‘학생부 기재’에 가세한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던 경기·전북도 교육청이 지난달 기재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지역 교장들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징계를 받아 지난 9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장 중임 탈락 등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는 이중처벌이 아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시를 따르다가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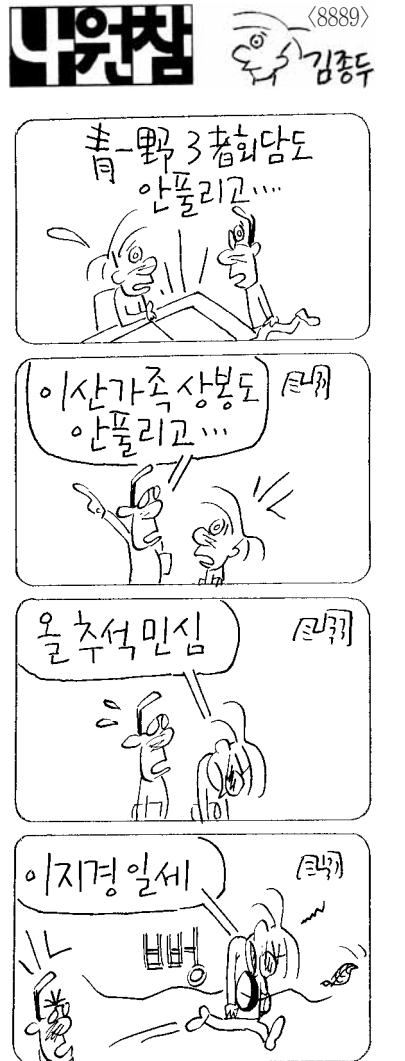
시교육청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교육청의 관련 담당자들도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다.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안 전생활과는 “학생부 기재는 소관이 아니다”며 진학진로 담당으로 전가하고, 진학진로를 담당하는 미래인재교육과는 “학생부 기재 요령만 전달할 뿐 기재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회피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실도 교육감 방침만 얘기할 뿐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은 “그 동안 교장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념 갈등에 끼어 힘들었다”며 “특히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지시와 요구만 하는 교육청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학생부 기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와 관련 입시 혼선과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은 막바지 귀경객들로 한때 북적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귀경 인파 북적

성폭행 피해 키운 광주 서부경찰

2004·2005년 이어 5·7월 성폭력범... 안일한 수사 공조 미흡 비판

지난 6월 광주에서 강간 미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30대 용의자가 경기도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허술한 공조 수사와 안일한 대처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이모(33)씨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주택가에 침입, 혼자 사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것이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귀가하던 A(여·43)씨를 따라가 폭력을 휘두른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5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이모(33)씨가 지난 7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경찰은 파주에서의 추가 범행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공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 당시 서부경찰은 양동 범행 현장에서 이씨의 DNA를 채취, 두 차례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언론에 알려진 범행이 우려되는데도 “피의자 인권 침해” 등을 내세워 수배령을 내리는 것 외에 공조 수사 등 적극적인 검거 방침을 내놓지 않아 범

인 검거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합평·고흥경찰의 경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 빠른 시기에 범인을 검거한다.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11시간 만에 시민 제보로 성폭력범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한 남부경찰의 2010년 사례와도 비교된다. 점에서 안일한 수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제작할 상태로 이른 시일 내 공개 수사로 전환, 조기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차분한 귀경길

고속도 소통 원활... 광주~서울 3시간40분 소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그리운 고향을 뒤로 하고 일터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22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17만대의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와 전남지역을 빠져나갔다.

지난 20일엔 39만8000대, 21일엔 33만6000대가 각각 귀경길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40만대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연휴 기간(5일)이 길어 귀경길의 경우 그만큼 분산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통이 원활한 편이었다.

승용차 기준 광주~서울 소요시간은 3시간40분이었으며, 목포~서울 구간은 4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공항과 광주역,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은 평일보다 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연휴 기간 광주·전남지역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일 밤 11시30분께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28)씨가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순천시 인월동 인월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SM3 승용차가 충돌해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임신부 김모(27)씨가 숨지고 운전자 이모(27)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6시간 전에 같은 장소에서 SM5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김모(33)씨가 숨졌으며, 지난 20일 오후 12시40분께엔 완도군 고금면 도로에서 경운기가 전복돼 운전자 김모(66)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윤석 사무총장 보석 석방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 17일 김 사무총장, 함께 기소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여·44)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왜 다른 가게보다 우유 비싸” 행패

○바나나 우유의 가격이 다른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200원 더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용접공이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9)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가게에서 종업원(20)과 바나나 우유 가격 문제로 시비 끝에 계산대를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김씨는 종업원이 바나나 우유 값으로 1000원을 요구하자 다른 가게보다 200원 더 비싸다며 따진 뒤 “사장을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에서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회색수술.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우울한 명절 세대

어머니 부양 형제간 폭행... “성묘 안간다” 딸 뺨 때려

추석 연휴, 우울한 명절 세대를 반영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서부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78)의 부양 문제로 딸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권모(56)씨와 동생(49)을 나란히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동생의 아파트 내에서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불

어 서로의 목을 한차례씩 미는 등 폭행했다.

또 광주서부경찰은 딸(17)의 뺨을 때린 혐의로 신고된 아버지 고모(48)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고씨는 추석인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성묘를 가지 않겠다는 고 3수험생인 딸에게 화가 나 뺨을 때린 혐의다. 고씨는 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영화속 장면처럼 아름다운, 품격을 넘어 예술이 되는 웨딩.

2014년 1월, 당신을 찾아옵니다.

서광주의 방향

Art Convention
웨딩문화공간
제아트컨벤션

제아트컨벤션과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협력점 모집중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예식부 | 예약실 0명
연회부 | 조리부장, 조리원, 연회부장 각 0명
관리부 | 건물관리, 회계관리 각 0명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경력위주 작성)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모집기간
2013년 9월 30일까지(우편 및 e-mail 접수분에 한함)

접수방법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8번길 46(신안동)
e-mail 접수 : jarthall@naver.com

문의전화 062-383-9901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